



2018 파리모터쇼 현대자동차 부스에 전시된 i30 패스트백 N.



푸조 e-레전드 콘셉트.



2018 파리모터쇼 기아자동차 부스에 전시된 니로 EV.

글로벌 완성車 집결… “친환경·고성능車 시대 연다”

현대차 i30N 신모델 공개… 기아는 ‘니로EV’ 유럽 첫 선

2018 파리모터쇼

푸조, 뉴 푸조 508 SW 최초로 선봬
시트로엥 ‘하이브리드 콘셉트’ 공개
도요타, 최신 하이브리드 모델 출품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인 파리모터쇼가 4일(현지시간) 개막한다. 1989년 시작해 1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모터쇼의 올해 키워드는 친환경차와 고성능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2018 파리모터쇼’에는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르노, 푸조, 시트로엥,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벤츠,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거 참가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형 모델은 물론 자사의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럽에서 개최되는 모터쇼인 만큼 유럽 완성차업체의 참여가 활발하다. 특히 개최국인 프랑스 대표 완성차 브랜드 푸조는 ‘뉴 푸조 508 SW’와 ‘푸조 e-레전드 콘셉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특히 푸조 e-레전드 콘셉트는 순수전기 자율주행차로 100 kWh 배터리를 장착, 6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초 미만이며 최고 속도는 220km/h다.

시트로엥도 ‘C5 에어크로스 하이브리드 콘셉트’를 유럽에 처음 공개한다. ‘뉴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 하이브리드 콘셉트’는 향후 시트로엥 SUV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 앞으로 등장할 시트로엥 SUV의 대부분이 이 모델을 밑그림으로 등장하는 셤이다.

특히 2023년까지 전체 모델의 80%를 전동화하겠다는 시트로엥의 목표대로 플

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고 있다. 본격적인 판매는 2020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i30 패스트백 N’과 ‘i30N N 옵션 쇼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i30 패스트백 N’은 ‘i30N’, ‘멜로스터N’에 이은 세 번째 N 모델로 고성능 주행성능과 차별화된 스타일이 조화를 이룬 준중형급 최초의 패스트백 스타일 고성능 차량이다. ‘i30N N 옵션 쇼카’는 ‘궁극의 성능’이란 콘셉트로 i30N 차량에 다양한 고성능 커스터마이징 부품을 장착해 향후 출시될 N 옵션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기아차는 유럽 전략형 모델인 ‘신형 프로씨드’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첫 번째 순수 전기차 SUV인 ‘니로 EV’도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공개한다.

기아차는 올해 말 유럽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인 니로 EV의 출시로 하이브리

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이르는 완전한 니로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 특히 기아차는 니로 EV가 전기차에 대한 유럽 고객들의 인식을 크게 개선하며 기아차의 판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는 SUV인 ‘더 뉴 GLE’를 비롯해 ‘더 뉴 B-클래스’와 ‘더 뉴 메르세데스-AMG A 35 4MATIC’ 등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더불어 지난 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로 공개된 메르세데스-벤츠 EQ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 ‘더 뉴 EQC’와 메르세데스-벤츠의 전설적인 레이싱카 ‘W 125’에 대한 오마주로 제작된 ‘비전 EQ 실버 애로’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BMW는 이번 모터쇼에서 7세대 뉴 3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MW 3시리즈는 전 세계 시장에서 1500만 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

셀링 모델이자 BMW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차다.

7세대 뉴 3시리즈는 획기적으로 확장된 혁신적인 운전자 주행 지원 시스템을 사용해 자율주행의 목표를 새롭게 제시할 방침이다. 뉴 3시리즈는 내년 3월 출시 예정이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과 TNGA(도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플랫폼을 선보인다. 또 최신형 ‘코롤라’ RAV4 ‘캡리’에 이르기까지 전 차종에서 하이브리드 모델만을 출품한다.

포르쉐는 콤팩트 SUV 모델 ‘신형 마칸’을 공개한다. 2014년 첫 선을 보인 후 스포티 플래그십 세그먼트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해 온 마칸은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한층 진보된 디자인과 새로운 첨단 테크놀로지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순수 전기차 아우디 e-트론.

젊어진 감각·고급 승차감으로 돌아온 렉서스

렉서스 ‘ES300h’ 7세대 풀체인지

3개월 동안 4000대 사전계약 기록

렉서스가 자랑하는 수입 하이브리드 차 최다 판매 차종 ‘ES300h’가 7세대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로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렉서스 코리아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몰 커넥트 투에서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세단 ‘뉴 제너레이션 E S300h’의 미디어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렉서스 코리아에 따르면 ES300h는 3개월 동안 4000대가 사전계약했다. 2012년 6세대 하이브리드 모델이 1개월간 1000대의 사전계약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월등한 수치다. ES300h의 올해 목표 판매량은 8000대다.

ES는 지난 1989년 렉서스 브랜드 출범과 함께 탄생한 핵심 차종으로 220만대의 글로벌 판매수치 기록을 갖고 있다. 현재 렉서스 국내 판매량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7603대가 팔렸다. 이는 1만9811대가 팔린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우디에 공급할 O LED가 소비전력이 적고, 얇고 가벼운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우수한 색재현력과 완벽한 블랙컬러 표현력, 빠른 응답 속도로 저온의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백지호 삼성디스플레이 전무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가 아우디의 버추얼 익스테리어 미러에 탑재된 것은 OLED가 차량용 첨단 시스템에 최적화된 제품임을 입증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아우디 ‘전기 SUV’에 삼성 OLED 탑재

삼성디스플레이, 공급 계약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우디가 선보인 전기 SUV 유트리티 차량(SUV)인 e-트론에 7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e-트론은 아우디가 처음으로 양산해 판매하는 순수 전기차다. 지난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초 공개됐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버추얼 익스테리어 미러는 기존 사이드미러 대신 작은 사이드 뷰 카메라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옵션으로 운전자는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차량 내 전면유리 옆기둥(A 필러)과 도어 사이에 설치된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OLED 디스플레이에는 차량 대시보드 좌우에 각각 한 대씩 장착돼 카메라와 함께 기존 사이드미러 기능을 대신한다. 또한 터치 센서가 내장돼 스마트폰을 조작하듯이 터치

테헤란 노부유키 한국 토요타 자동차 사장(오른쪽)과 배우 현빈(왼쪽)씨가 ‘뉴 제너레이션 ES300h’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렉서스 코리아

다”며 “신차 교체 주기가 짧은 국내에서는 디자인이 과감할수록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디자인 외에도 새롭게 개발된 GA-K 플랫폼으로 고급스러운 승차감은 물론 날카로운 핸들링, 강화된 차체 강성, 최적의 무게 배분을 통해 운전의 재미를 더했다.

신형 ES 300h의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인하를 적용해 ▲수프림 5710만원 ▲럭셔리 6050만원 ▲럭셔리 플러스 6260만원 ▲이그제큐티브 6640만원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르노삼성 QM3 구매고객 온라인 이벤트 실시

르노삼성자동차가 QM3 구매 고객을 위해 온라인 깜짝 이벤트를 실시한다.

르노삼성은 QM3를 온라인에서 구매 청약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최대 5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QM3 플래시

세일’ 프로모션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국내 소형 SUV 시장 대표모델인 QM3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10월 중 르노

삼성자동차 홈페이지의 내 차 만들기 e-쇼룸에서 QM3 마린 블루 컬러 차량의 구매 청약을 완료한 고객 중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진행된다.

‘QM3 플래시 세일’을 통해 QM3 마린 블루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60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